

금융소비자의 직접 및 간접투자행동에 관한 연구

성 영 애(인천대 교수)

일생에 걸친 자원배분행동의 하나인 투자행동은 생애소비만족을 위한 중요한 활동이다. 최근 저축이 자율이 낮아짐에 따라 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투자를 하는 방법에는 금융소비자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직접투자방식과 전문적인 자산운영사에 자산을 위탁하여 수익을 획득하는 간접투자방식이 있다. 투자의 특성상 손실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분산투자의 어려움 등으로 개인투자자는 전문투자자에 비해 문제를 경험하기 더 쉽다. 간접투자 역시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금융소비자문제를 야기하는 등 직접투자와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금융소비자들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행동의 정도나 이를 비교하는 기초연구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의 직접 및 간접투자행동을 분석하고자한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투자자보호재단에서 조사한 2009년도 펀드투자자조사이다. 이 조사는 서울,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현재 또는 잠재펀드투자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투자자교육 방향의 정립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조사이다. 총 2,530이 조사대상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1)조사대상의 간접 및 직접투자행동의 수준은 어떠한가? 간접 및 직접투자행동으로 투자유형을 분류하면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가? (2)투자유형별 경제적 특성은 어떠한가? (3)투자유형별 투자성향은 어떠한가? (4)투자유형별 재무교육 및 재무상담 경험수준은 어떠한가? 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접 및 직접투자행동으로 투자유형을 분류하면 (1)투자를 전혀 하지 않은 유형이 38.5%이고 (2)간접투자는 하나 직접투자는 하지 않는 유형은 28.4% (3)직접투자만 하는 유형은 12.1% (4)간접투자 및 직접투자를 모두 하는 유형은 21.0%이다. 결국 조사대상자의 61.5%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투자행동을 하고 있다. 둘째, 투자유형별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 유형의 가계소득, 금융자산, 실물자산, 가계부채 및 순자산의 규모가 가장 낮았다. 반면 간접투자와 직접투자를 모두 하는 유형의 경제상태가 가장 좋은 편이었다. 간접투자만 하는 유형과 직접투자만 하는 유형 간에는 가계소득, 금융자산, 실물자산 및 순자산에 차이가 없었으나 가계부채는 직접투자만 하는 유형이 더 많았다. 셋째, 투자유형별 투자성향을 살펴보면 직접투자만하는 유형과 간접투자만 하는 유형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직접투자만 하는 유형은 다른 모든 유형보다 단기적이며 빚을 가지고도 투자를 하며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크며 안정보다는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투자유형별 재무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직접간접투자를 모두 하는 유형의 경우 경험이 가장 많았지만 그 수준은 18.4% 정도이다. 재무교육경험이 가장 적은 유형은 투자를 안 하는 유형이다. 재무상담 경험은 재무교육경험보다는 많은 편이었는데 투자를 안 하는 유형의 경험이 가장 적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경우 투자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위험한 투자성향을 지닐수록 간접투자보다는 직접투자를 선호하고 재무상담의 경험이 있을수록 간접투자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상태가 좋아질수록, 재무상담이나 재무교육의 경험을 가질수록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병행하는 모습이 나타나 투자교육이나 상담에 있어서

초보투자자의 경우 간접투자로 시작하여 병행투자자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주었다. 직접투자자의 경우 단기적, 집중적, 신용투자 등의 경향이 크므로 직접투자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상의 주의가 요청된다.